



# KWC 메달 스티커를 확인하라

화려한 색상의 수상 메달 스티커가 붙어있는  
와인 병들은 마치 공을 세운 장군들의 제복처럼 화려하다.  
생산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와인을 빚어내기 위해  
쏟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성과이다.  
와인 챌린지의 금상, 은상, 동상 스티커는  
분명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글 신승우 사진 장영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와인 챌린지 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맛있는 와인'에 대한 남들의 판단에 대해 나의 입맛은 과연 동의할 것인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주관하는 월간 와인리뷰는 지난 16년 동안 매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고민해 왔다. 무엇보다도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단의 구성은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시음 경험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단을 구성할 뿐 아니라, 대회에서 수상하는 와인은 복수의 전문 심사단에게 시음된 후 평가받는 방법을 거친다.

매년 수상한 와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럽의 전통적인 유명 와인 산지 이외에도 소위 신세계(New World) 와인 산지에서 출품된 와인들이 적지 않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구세계(Old World)의 와인에서는 긴 세월을 거쳐 다듬어진 양조 문화 연속성을 틀 안에서 드러나는 전통적인 스타일이 발견된다.

반면 유럽보다 훨씬 늦게 양조를 시작한 신세계 와인 지역의 스타일은 같은 품종이라도 일반적으로 더 바디감이 있고, 더 후루티하고, 더 알코올이 높다. 구세계와 테루아(Terroir)가 다르다는 이유 이외에도, 현대의 양조 기술을 동원하여 바디감도 풍성하고 과일 향도 풍성한 현대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려는 신세계 생산자들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신세계와 구세계 와인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철저한 100%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된다. 와인 맛보기를 직업으로 하는 내외국 소믈리에들과 와인 전문가들이 공정의 틀 안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되는 와인 대회이기 때문에, KWC 수상 와인에 수여하는 스티커는 소비자에게 '맛있는 와인'에 대한 인증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상 와인이 얻게 되는 성과는 눈부시다. 반짝이는 스티커로 인한 가치는 수상 와인의 매출 증가로 증명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맛있는 와인'에 대한 남들의 판단을 나의 입맛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우리 중 누구도 똑같은 맛을 느끼지는 않지만, 누군가와와는 상당히 공통적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소비자들이 와인 구매에 앞서 믿을 수 있는 추천을 원하고 있다.

KWC의 심사위원단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와인 시음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같은 와인을 맛보고 서로 점수를 매긴다. 전문가라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맛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와인 맛보기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어서 오히려 재미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그 입맛들이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와인을 골라낸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맛이 궁금하다면, 올해 KWC에서 최우수 트로피상, 금상, 은상, 동상 스티커를 확인하라. 내 입맛에도 딱 맞는 그 와인이 신세계(New World) 와인 생산자가 야심차게 빚어서 새롭게 보내온 국내 첫 출품 와인일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맛있는 와인'에 대한 KWC 심사위원단의 선택은, 와인 소비자로서 매년 확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